

8년간의 나를 돌아보며

김난엽(엘리사벳)

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

아카시아꽃의 달콤함에 설레는 5월, 문득 2012년의 5월의 내가 떠올랐다.

우연히 지인에게 처음 들어본 호스피스, 무조건 나에게 잘 맞아 잘 해낼 것이라는 말에 얼떨결에 교육을 받고 정신없이 맞이했던 그 오월!

첫 실습 날,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선배님 뒤를 따라 들어선 병실에서 앙상하게 마른 손목, 새까맣게 변한 얼굴로 너무나도 힘들어하던 젊은 엄마를 만났다. 복수로 잔뜩 부푼 배는 환자복으로도 다 가려지지 않았고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와 통증으로 잔뜩 찌푸린 그 모습은 40대 초반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. 그 몸으로도 자신보다는 남겨질 어린아이들 걱정에 마음 놓고 울지 못하던 그녀와의 만남은 나에게서 공포였고 그 절망이 내게 달라붙을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뒷걸음쳤다.

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. 할 수도 없었다. 두려웠다. 무기력하게 눈물만 삼켰고 선배님들 뒤에 숨어 앵무새처럼 기도서만 읽었고 그 방을 서둘러 나오기 바빴다.

그러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, 그녀가 떠났다.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내려간 그곳에서 만난 그녀는 흰 국화꽃에 둘러싸인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. 깡마르고 힘들어하던 그녀와의 이별은 준비했었다. 하지만

그곳에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, 환자가 아닌 아주 건강하고 환한 미소가 아름다운 그녀와의 이별은 상상할 수 없는 낯섦이 되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, 숨 막히게 했었다.

환하게 웃는 그녀와 이별은 나에게 충격 그 이상이었고 힘듦의 날들이 되어 나를 괴롭혔다.

너무 힘들어서 ‘봉사를 그만둘까? 계속할 수 있을까?’ 고민하였고, 아침만 되면 ‘오늘은 실까? 힘들다고 결석할까?’ 핑곗거리를 만들다가도 무심하게 울어대는 알람 소리에 마음이 불편해져 땀박질하며 버스에 오르곤 했다.

그러다 몇 년 전 익숙한 이름에 설마 하며 들어간 병실에서 후배를 만났다. 재치 있고, 활달하고, 빛이 나던 예쁜 후배. 그녀와 병실에서 환자와 봉사자로 만났다.

너무나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 하였고 허둥대다 서둘러 그 방을 나왔던 기억.

좋아졌다고 했었는데, 여기서 만났으니 그녀의 상태가 피부로 전해졌고 나는 그녀를 두고 혼자 고민만 했다. 건강했던 예전 모습만 떠올라 방문을 피하게 되었다.

그녀가 퇴원과 입원을 반복할 때마다 더 병세는 깊어지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모든 걸 거부했다. 그래도 열심히 운동하며 의지를 굽히지 않던 그 모습에 그저 안타까

워질 뿐이었다.

어느 날 생일을 집에서 보내겠다고 퇴원할 때 “언니 내년에도 생일을 맞을 수 있을까?” 처음으로 병세를 인정하듯 뻔은 말에 괜찮은 척 숨기고 있던 내 마음도 무너졌다. 얼마 후 그녀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.

그제야 나의 행동이 배려가 아닌 상처 받지 않으려, 힘든 상황을 모면하려 한 비겁함임을 깨닫게 되었다. 더 잘해주고 싶고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고 나를 몰아세웠지만 그러지 못하는 무력감에 서성인 시간이 후회되고 부끄럽고 미안해졌다.

손 한 번 더 잡아주고, 옛날 이야기하며 곁에 있어 줬더라면... 후회된다.

그녀와 헤어진 후 무조건 잘하러 애쓰지 않게 되었다.

그동안 나는 봉사를 한다고만 생각했다. 하지만 언제나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그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신 할머니를 만났다.

보호자 없이 혼자 계시던 할머니는 늘 괜찮다며 돌봄도 거절하셨다. 어느 날 잠드신 할머니 곁에서 조용히 주모경을 바치고 손을 잡아보았는데 할머니도 꼭 잡아주시며 정말 돈 안 받고 일하는 것 맞냐고 물으셨다. “저는 봉사자라 돈은 안 받고 할머니 사랑은 꼭 받고 갈 거예요.” 했더니 그럼 당신도 발마사지 해달라고 하시며 발을 내미셨다. 그 날 할머니와 이야기하다 보니 세례명도 같아 더 쉽게 가까워졌다. 마치 엄마와 딸처럼 내 고민도 명쾌하게 해결해주셨고 스스로없이 대하게 되었다. ‘곁에 있어 줘서 고맙다.

언제 올까 기다려진다.’라는 그 말씀이 어떤 칭찬보다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. 많이 기다리셨을 할머니와 길지 않은 만남 중에 나누었던 담백했던 이야기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준다. 큰 것이 아니어도 좋다. 눈빛 하나 주모경 한 번으로도 힘을 얻고 행복해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나를 힘이 나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믿음이 되었다,

할머니와의 만남은 간결하게 내 마음이 정리가 됐고, 맑은 물처럼 푸른 물감을 풀면 푸른빛으로, 또 다른 색을 물들이면 다른 빛깔을 담고, 난 그저 선입견 없이 맑음으로 다가 나에게 전해주는 분들의 색을 담을 뿐이다. 노란 엄마도 되고 빨간빛 딸도, 또 친구도 되어 딱지 앓은 그분들의 상처 위에 비록 새살이 돌아나게는 못하여도 피가 나지 않게 부드럽게 사랑의 약을 바르며 주님께 기도를 봉헌 할 수 있게 되었다.

호스피스 봉사자로 처음 내디뎠을 때는 무지함에 두렵고 무겁게만 느껴지고 힘들다 생각되었는데, 그런 날들이 한 달이 되고, 그 한 달이 한 해를 넘겨 어느덧 팔 년이란 시간을 함께 하게 되었다.

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봉사가 중지되어 뱉지는 못하여도 이 시간 병상에서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환우와 치료에 땀 흘리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, 그리고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시며 밝음으로 인도하시는 신부님, 수녀님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.

2020년 5월
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 봉사자 김난엽